

로에베 공모전에 나타나는 현대 공예의 융·복합적 현상에 관한 연구

김준용¹, 서성욱², 박중원^{3*}

¹청주대학교 공예디자인학과 교수, ²청주대학교 공예디자인학과 석사과정,
³국민대학교 도자공예학과 교수

Convergence and Composite Phenomenon of Contemporary Crafts in the Loewe Craft Prize

Joon-Yong Kim¹, Seong-Uk Suh², Jung-won Park^{3*}

¹Professor, Department of Craft Design, Cheongju University,
²MFA Student, Department of Craft Design, Cheongju University,
³Professor, Department of Ceramics, Kookmin University

요 약 2017년에 시작된 Loewe Craft Prize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공예 공모전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럭셔리 브랜드에서 시작된 Loewe Craft Prize가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공예를 아우르는 최고의 공모전으로 발전한 배경에 주목하였다.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공모전이 존재하는 공예에서 장르의 다양성과 재료의 한계가 없는 Loewe Craft Prize가 만들어 내고 있는 공예의 관심도는 어떠한 공모전도 이루어 내지 못한 실적이다. 이는 Loewe Craft Prize가 가지고 있는 공예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과 기존의 단일 재료로 구성된 공모전과는 차별화된 복합 공모전을 형성, 발전시킴으로서 가능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배경인 재료의 융복합, 전통과 현대의 융합, 과학과 공예의 융합을 통한 사례들을 연구하였으며 작가들의 성향과 작품을 통한 현대 공예의 흐름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공예 장르의 확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현대 공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주제어 : 공예, 공모전, 로에베 공모전, 융복합

Abstract Launched in 2017, Loewe Craft Prize is now establishing itself as the most prestigious craft contest in the world. In this study, we noted the background behind the Loewe Craft Prize, which started with a luxury brand, developing into the best contest covering all crafts in a short period of four years. In crafts with various contests around the world, Loewe Craft Prize's interest in craft, which has no limitations on genre diversity and materials, is a result of no contest. This is possible by forming and developing a complex contest, which is differentiated from the existing single-material contest and the distinct values of the crafts possessed by Loewe Craft Prize. In this study, the background of this result was the convergence of materials, the fusion of tradition and modernity, and the convergence of science and crafts, and the tendency of writers and the flow of modern crafts through their works. We also want to find out how the meaning of the expansion of the craft genre affects modern crafts.

Key Words : Crafts, Craft Prize, Loewe Craft Prize, Convergenc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현대공예는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성장을 이뤄왔다. ‘청주공예비엔날레’를 비롯하여 국내외로 다양한 공예 공모전 개최를 통해 다양한 작가들을 발굴하였고, 각국의 작가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국 현대공예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대미술과는 달리 공예 분야 전반에서 지금까지 성공적인 탈바꿈의 시도가 부재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현대미술은 산업혁명의 시기를 거치면서 시기적절하게 변모를 시도했고 그 시도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산업혁명에 따른 기계의 등장으로 모든 생산체계가 질과 양적인 면에서 풍요로워지게 되었다. 산업혁명에서 기계가 등장함으로써 노동력을 절약하고 생산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1]. 기계 생산이 확대되면서 인쇄술이 발전하여 회화가 도태되는 듯 하였지만, 변화의 물결은 매체의 변화를 겪으며 새로운 스타일의 회화를 등장시켰고, 오히려 다양한 형태의 회화작품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다. 회화 분야가 기술의 변동에 적절하게 반응했던 것에 반해, 공예는 산업혁명이 가져온 변화의 움직임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해서 낮은 수준의 예술로 취급 받게 되었다. 18세기 후반부터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수공예가 점차 귀족적 감상공예품으로 변질되고, 가내수공업이라는 과도기적 형태를 거쳐 기계생산체제에 의해 생산된 디자인 제품이 공예의 도구적 기능을 잠식해 버린 것이다.[2] 다시 말해서, 공예품을 작품이 아닌 단지 일상용품으로서 사용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상품 혹은 물건으로 취급하기에 이르렀고[3], 결과적으로 공예가 예술의 영역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공예가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해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하고 뒤쳐진 것은 기술과 매체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스타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 시기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공예분야의 작품을 예술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작업은 공예가 도구적 기능의 범주에 제한되었던 한계를 벗어나 예술의 한 장르로서 잠재적인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로에베 공예공모전(Loewe Craft Prize)’을 사례로 공모전이 선정하는 다양한 작가들의 작

품 분석을 통해 예술적 측면에서 공예의 융·복합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살펴보고 연구·분석하고, 융·복합을 통해 현대 공예가 지향해야 할 미래는 무엇인지 탐구하며 변화의 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스페인의 브랜드인 로에베(Loewe)가 매년 개최하는 ‘로에베 공예공모전’ 수상작들을 비교·분석하여, 현대공예에 필요한 융·복합이라는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과거로부터 이어진 공예의 역사와 현시대의 공예의 역할 그리고 성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대공예와 융·복합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로에베 공예공모전에서 수상한 작가들 중 소재로써 융·복합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작가들을 선정, 비교·분석하여 공통된 융·복합적 특징을 도출해내고, 나아가 로에베 공예공모전이 장르로써 공예 분야의 융·복합에 대해 어떤 관점의 접근을 시도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현대 공예에서 공예 공모전의 기능

2.1 작가의 발굴

로에베의 대표 작가 에른스트 감펠과 제니퍼 리는 로에베의 공모전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가들이다. 이들의 작업은 단지 감상이나 사용을 위한 작품들이 아닌 시간에 대한 철학적인 담론을 담고 있는 작품들이다(Fig. 1). 전통적인 기법에서 시작된 작업들이지만 감펠과 리가 사용하고 있는 재료는 삶과 죽음, 시간과 공간의 연속성 등의 의미를 담아내는 기의 형식을 지니고 있다. 이들의 작업이 시사하는 바는 공모전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현대 공예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들이 제시하는 방향이 반드시 옳은 방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공예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제시로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두 작가를 발굴하고 스타작가로 만드는 로에베의 전략은 패션 브랜드의 예술적인 접목 및 전통과 현대의 접목을 통해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공예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4회의 공모전을 통해서 그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에른스트 감펠은 생존 작가 최초로 빅토리아 앨버트 뮤지엄에서 개인전을 여는 최초의 작가가 되었으며, 제니퍼

리는 로에베 공모전에서 수상 후 2019년 영국 케임브리지의 Kettle's Yard에 있는 '도예가의 공간'에서 1994년 이후 열린 첫 개인전의 주인공이 되었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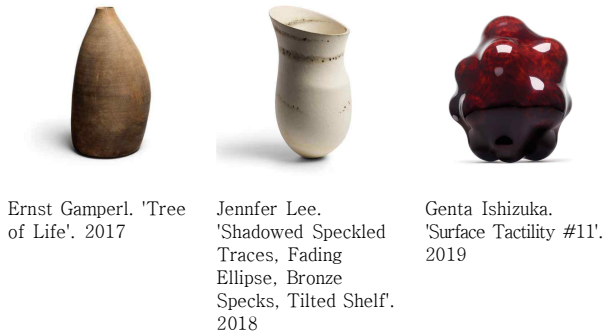


Fig. 1. Examples of winners of Loewe

2.2 공예의 미학적 담론 제시

지금까지 공예 분야의 공모전에서 작품을 공모한 범주는 크게 금속, 도자, 섬유, 목질을 중심으로 기타 분야가 나뉘어져 왔다. 한 예로써 청주국제공예공모전을 비롯한 공모전들의 공모분야 내용은 아래 Table 1, 2 와 같다.

공예분야는 주로 재료로 분류되고 명명되는데 위의 공예 공모전들의 공모 분야를 살펴보면 이러한 분류가 나타나 있다. 공모 범주에는 도자, 금속, 나무, 섬유, 유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예품은 물론 공예의 하위범주도 도자, 유리, 섬유, 금속, 나무와 같이 재료를 중심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다. 전통적으로 공예품은자연에서 채취하거나 자연에서 생산된 원료를 가공하여 만든 재료로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은 공예품 제작의 특성은 공예가가 특정 재료와 기술에 반드시 통달해야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중세 길드제도는 공예품 제작에서 이러한 지식과 기술적 숙련의 중요성을 반영한 체계였음을 알 수 있다. 근대의 전통공예를 계승하는 문화의 영향으로 플라스틱과 같은 비 공예 재료는 공예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전통적 공예품 제작의 특성을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즉 여타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재료들을 발견하여 공모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공예 분야 내부에서도 재료적인 접근보다는 공예의 담론, 즉 철학적 측면의 접근으로 전환을 꾀하며 전통적 기법과 재료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시도들이 나타난다. 새로운 시도들은 공예의 기능성을 중요시하던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나 작가는 작품에

Table 1. Categories of Chung-ju International Craft Prize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Competition	Category
1st 1999	Metal, Ceramic, Wood(Lacquer), Fiber, etc.
2nd 2001	Metal, Ceramic, Wood(Lacquer), Fiber, etc.
3rd 2003	Metal, Ceramic, Wood(Lacquer), Fiber, etc.
4th 2005	Metal, Ceramic, Wood(Lacquer), Fiber, etc.
5th 2007	Metal, Ceramic, Wood(Lacquer), Fiber, etc.
6th 2009	-
7th 2011	Metal, Ceramic, Wood(Lacquer), Fiber, Glass, etc.
8th 2013	Metal, Ceramic, Wood(Lacquer), Fiber, Glass, etc.
9th 2015	Metal, Ceramic, Wood(Lacquer), Fiber, Glass, etc.
10th 2019	Metal, Ceramic, Wood(Lacquer), Fiber, Glass, etc.
11st 2021	Metal, Ceramic, Wood(Lacquer), Fiber, Glass, etc.

Table 2. Categories of Contemporary Craft Prize

Name	Category
LOEWE Craft Prize	Ceramics, Bookbinding, Enamelwork, Jewellery, Lacquer, Metal, Furniture, Leather, Textiles, Glass, Paper, Wood, etc.
Korea Craft Competition	Wood, Lacquer, Ceramic, Metal, Fiber, Paper etc.
Grand Art Exhibition of Korea	Ceramic, Furniture, Metal, Fiber, Wood, Lacquer, etc
Korea Annual Traditional Hand Craft Art Exhibition	Wood, Hwagak, Bamboo, Woodcarving, Embroidery, Knot, Dyeing, Ceramic, Pottery, Paper, Metal, Dancheong, Buddhist paintings, Folk paintings, Voodoo paintings, Instrument, Jade, Leather, Chogo, Jewelry, Horsehair, Fan, Lacquer, textile, Needlework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의미를 중요시하게 되었고, 재료와 기법,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표현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대공예의 경향은 개념의 확대, 다양한 주제, 새로운 재료의 발견과 도입, 다양한 형태와 기법 등으로 그 표현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재료의 도입과 이를 활용한 혼합재료의 다양한 표현 방법에 의해 현대공예는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5].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재료에 대한 집착과 기술 숙련도를 중요시하는 기술적인 작품 제작방식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공예에 대한 인식은 기술을 익히는 취미 활동의 이미지가 강한 것이 사실이다. 공예품 제작 방식의 특성과 그로 인해 형성된 보편적 인식을 뛰어넘기 위한 시도로서 로에베 공모전이 가지는 의의는 공예가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면서 그 가치가 현대에 어울리는 예술적 담론을 내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둠과 동시에 전통을 보존하며 새로운 시도의 융복합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여러 장르에 대해 개방성을 지닌 공

예로 확장을 꾀한다는 점에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모전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미래를 이끌어 갈 작가를 발굴하는 것 외에도 공모전에서 수상하는 작가들의 공예 작품을 통해 공예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예의 담론과 융복합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로에베 공모전 개요

3.1 현대 공예에서 로에베 공모전의 의미

로에베 공모전은 공예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키고 현대 장인 정신의 독창성과 예술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16년 로에베 재단에 의해 시작되었다. 2016년 이후 공모전은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참가자격은 연령 18세 이상의 작가가, 최근 5년 내에 만든 작품에 대해 주어진다[6]. 심사위원은 예술과 디자인,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전문가 패널이 선정한 최종 후보자 중에서 우승자를 선발하게 된다. 전문가 패널은 예술가와 장인, 큐레이터와 디자이너로 구성되어 있다. 심사기준은 장인정신과 창조적 아이디어, 기술적 혁신 그리고 재료의 융·복합이다[6].

로에베 재단은 1988년 브랜드의 창립 멤버인 엔리케 로에베(Enrique Loewe)가 만든 사적 문화 재단으로, 공예 장인들의 창의성을 독려하고 문학과 댄스, 디자인, 공예 등 다양한 예술 영역에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알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8]. 로에베 재단의 주된 설립 목적은 디자인의 발굴과 장인 정신의 지원에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예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최근 몇 년간 공예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공장에서 대량생산을 해왔던 이전과 달리 지금은 공예의 가치가 더 중요시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로에베 재단은 1988년부터 공예장인들의 창의성을 독려하고 다양한 예술 영역에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알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브랜드의 전통 계승과 현대 라이프 스타일의 자연스러운 조합을 고민한 끝에 아트, 디자인, 장인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공예’를 키워드로 삼고 ‘크래프트 프라이즈’를 출범시켰다”[7].

로에베 재단은 2013년 빅토리아앤알버트 뮤지엄의 임원이었던 조나단 앤더슨(Jonathan Anderson)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creative director)로 영입하였다. 조나단 앤더슨은 로에베 공예상을 제정함으로써 공예의

가치를 공유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오늘날의 지식을 재해석하여 작가의 개인 언어와 뚜렷한 손길을 반영하는 작업을 식별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문화에 공예의 지속적인 기여를 강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3.2 로에베 공모전의 방향성

로에베 공모전이 추구하는 지향점은 공모전의 다양성을 수용함으로써 분야별 발전을 이루는 방식이 아닌, 공예 전체의 크기가 넓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공예가 아직까지 취미공예, 지역공예, 전통공예 등으로 지역적 틀과 보편적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과 동시에 비전문적인 모습[9]을 띠고 있지만, 로에베 재단은 공모전을 통해 재능 있는 인재들의 활동을 알리고 공예가들이 이룬 크고 작은 업적을 공유함으로써 공예에 대한 인식과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또한, 예술 공예를 지원하고 전 세계 유명 공예가의 가치를 인정하여 다양한 공예 장르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을 발굴하고자 한다. 따라서 공예 공모전이 발전함으로써 공예에 대한 인식과 기존의 지역 민속공예가 더욱 높은 차원으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3 로에베 재단을 통한 마케팅

로에베 공모전은 매년 30명의 작가를 선발하고 그 중 1등에게만 50000유로의 상금을 지급한다. 수많은 공모전 인원의 참여는 단지 1등 상금의 규모가 아닌 공모전이 가지는 가치와 영향력, 명성때문일 것이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로에베 공모전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공모전으로 유명해진 이유는 단지 명품 의류 브랜드 회사가 만든 공모전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공예가 가진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공예가 나아가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예의 확장성, 즉 융합적 공예의 시도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단지 현대 공예를 발전시키기 위함이나 전통 공예의 계승이 아닌 시대적 융합과 재료적 융합 및 새로운 시도를 중시하는 가치를 내세우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공예는 “다양한 기술과 스타일, 재료를 이용하여 만들어지며 국가적 자긍심을 고양함은 물론, 그 사회의 다양하고 독창적인 문화와 이를 구성하는 민족의 독특하고 예술적이며 창조적인 표현을 반영한다”[10]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명품 의류 브랜드 마케팅의 일환으로서 공예 공모전이 공예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의류 브랜드의 특성상 마케팅은 그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이다. 공모

전을 통해 의류 브랜드를 광고함과 동시에 지역과 국가만이 아닌 세계적으로 공모전에 대한 광고를 함으로써 브랜드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브랜드가 가지는 예술적 가치에 대한 홍보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공모전이 열리는 도시에 대대적인 퍼블릭 홍보를 함으로써 외향적으로는 공예 공모전을 알리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술적 가치를 가진 브랜드라는 이미지도 홍보하는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광고 전략으로 공예 분야와 관련하여 기업과의 협력을 창출하고 예술적 가치를 높이며 대중성을 넓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공예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를 만드는 것은 공모전의 역할이며 그것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는 기업 및 명품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단순히 공모전이 공예가들만의 행사가 아닌 대중과 호흡하며 공예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계기로 발전함으로써, 공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작가들의 영역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4. 로에베 공모전에 나타난 융합 사례 연구

4.1 전통-현대의 융합 시도

토마스 프리드만(Thomas L. Freidman)은 “오늘날에는 정치, 문화, 기술 등 전통적인 경계가 사라지면서 다른 분야를 배제하고 특정 분야만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인문, 과학, 예술, 기술 등 각각의 분야들을 결합하고 통합할 뿐만 아니라 응용을 통해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는 과정을 통칭해 융합이라고 한다[11].

이에 로에베 공모전의 방향성과 마케팅의 이중효과를 토대로, 로에베 공모전이 시도하고 있는 영역의 확장성과 공예 분야의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의 틀 안에서 전통과 현대 공예의 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다. 전통공예와 현대공예는 재료의 특성은 동일하나 제작방식과 풀어내고자 하는 담론의 차이로 인해 대다수의 공모전은 현대와 전통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치러지고 있다.

전통공예 분야 공모전의 특징은 공예의 기본 재료에서 과거 전통적(전통공예대전)으로 내려오는 기술과 제작 방식에 의한 재료의 사용을 기반으로 창의성을 중시하는 반면, 현대공예 분야는 재료를 기반으로 하는 추상적 지식의 표현을 중시한다. 추상적 지식이란 공예가의 기본적인 자질에 해당하는 재료를 다루는 기술적 지식이 아닌 재료에 대한 융복합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1]. 이렇게 서로

다른 특성 때문에 전통공예와 현대공예가 함께 어우러지는 담론을 만들어 내지 못한 채 이분법적인 구분을 공예 분야에서 스스로 만들어 내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로에베 공모전 1회 당선자들을 살펴보면 전통에 근거한 페루 출신 작가의 작업에서 그 영향을 볼 수 있다. Fig. 2는 전통을 기반으로 한 페루 작가들의 작품으로 수백 가닥의 밀 섬유로 재료로 한 상징물이다. 이들의 작품은 생활에 필요한 공예품이 아닌 그들이 숭배하는 태양신을 모시기 위한 제사용 장식용품이다. 이것은 지역적 특성을 중요시 여기며 전통이 현대 공예와 어우러지면서 작품이 가지고 있는 미학적 담론을 현대에서도 충분히 풀어 낼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을 만들어 낸 것이라 할 수 있다[12].

이와 같이 전통에 근거한 공예 작가들이 다수 존재함과 동시에, 재료의 물리적 특성을 파괴한 작품과 전통적인 공예의 재료가 아니거나 도저히 공예라고 볼 수 없는 재료를 사용한 작업들까지 다양한 분야가 있다. Fig. 3은 재료의 물리적 특성을 파괴한 작품의 한 예다. 얇은 금박을 용접으로 이어 붙인 후 내부에 공기를 불어넣어 만든 장신구로,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작품이다[13].

요컨대, 로에베 공모전을 통해 이루어진 전통과 현대 공예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플랫폼을 제작하여 현재 공예분야가 전통과 현대의 큰 두 개 영역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을 극복하고 공예 그 자체의 본질에 충실한 공모전을 구축함으로써 공예의 확장성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Fig. 2. Artesanias Panikua. 'Tata Curiata', 2016.



Fig. 3. Kim Buck. 'Puffed Up', 2012.

4.2 현대 과학과 공예의 융합

로에베 공모전에서 나타나는 물리적 물질 융합 시도는 현대 과학과 공예의 융합 시도를 보여준다. 로에베 공모전은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바탕으로 공예의 가치를 정립함과 동시에 공예의 새로운 방향성인 공예의 확장성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14]. Fig. 4의 작품들은 이에 대한 사례로서 유리, 시멘트, 적철석과 같은 타 재료와의 융합적 시도는 기본 공예 재료 이외의 재료 발견과 재료의 실험을 통한 물질적인 시도의 발견을 피하였다. 유리의 전통적인 제작 방식인 모래와 소다의 혼합물을 1300도의 가마에서 녹인 뒤 블로잉 파이프로 불거나 유리를 식힌 뒤 연마를 하거나 캐스팅을 하는 방식이 아닌 유리의 혼합물을 석고 틀에 넣고 유리를 용해하여 작품을 만드는 요시아키 코지로(Yoshiaki Kojiro)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유리의 물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벗어나 유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특성이 아닌 유리가 가지고 있는 미학적 담론을 나타내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공모전 방식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형식이며 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예가 가지고 있는 미학적 담론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 다른 예시로, 제3회 공모전에서 사라가 제작한 브로치는 금속이 아닌 돌과 산화물의 결합으로 제작된 작품으로서 이 또한 재료의 실험을 통한 융복합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재료에 기반을 둔 융합적 시도와 전통과 현대, 전통적인 재료와 비전통적 재료, 장르의 모호성을 통한 융합적인 요소는 로에베만 공모전의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로에베 공모전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관으로 자리 잡았다.



Yoshiaki Kojiro. 'structural Blue' 2015.

Sara Gackowska. 'Craquelure'. 2017.

Fig. 4. Works by convergence of science and crafts

4.3 공예 재료와 기법의 새로운 시도

공예의 분류는 대표적으로 재료에 의한 분류가 가장 먼저 이루어진다. 마샬 맥루언은 '두 가지 미디어의 이중 교배, 혹은 만남은, 거기에서 새로운 형태가 탄생하는 진

실과 계시의 순간'이며, 다른 미디어와의 만남을 통해서 기성문화에 만연되어 있는 나르시스적 자기도취에서 벗어나 기존의 미디어에 의해 무감각하게 마비된 감각이 자유를 얻어 해방되는 순간'이라고 설파한 바 있다[15]. 이 말은 기존의 공예가 대표적인 재료들로 인한 분류의 고정관념을 타파한다. 그만큼 공예에서 재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작업 소재에 따라 기법이 달라지고 작업환경까지 변하기 때문이다. 재료에 의한 분류는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대에 와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로에베 공모전에서도 발견된다. 즉 공모전에 참가할 때 재료의 카테고리를 선택하게 되지만, 선정된 작품들을 살펴보면 어느 한가지의 재료로 제작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한 예로써, 2019년 최종 후보로 선정된 '해리 모건'(Harry Morgan)이나 혹은 '미칼 파고'(Michal Fargo)의 작품이 있다. 해리 모건은 소재의 카테고리를 '유리'로 선택했지만, 실제로 작품에 사용된 재료는 콘크리트였다. 심지어 재료로 사용된 유리가 유리로 보이지도 않는가하면, 작품에서 콘크리트가 더 돋보이기도 한다. 미칼 파고의 작품은 '도예'로 분류되지만 외관상 도예작품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모습을 하고 있다. 정교하게 조각된 석기 점토 위에 섬유를 코팅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미칼 파고의 작품은 성형된 도자기 위에 섬유를 입혀 만든 작품으로 일상적인 재료들의 새로운 조합에 의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의미를 담아낸 작품이 되었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로에베 공모전에서 선정한 작가들의 작품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재료를 융합하여 제작한 작품들이 다수 선정되었다. 로에베 공모전 심사기준인 재료의 융·복합에 적절한 예시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공예가 더 이상 단일한 재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재와의 융·복합을 통해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작품성을 어느 정도로 끌어올렸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Harry Morgan. 'United of Dichotomy Series'. 2018.

Michal Fargo. 'untitled'. 2018.

Fig. 5. New attempt at materials and techniques

5. 결론: 현대 공예의 방향성

아직까지 로에베 공모전이 현대 공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으나 그 잠재적인 영향력은 막강하다 할 수 있다. 공예계에서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는 재료간의 융합, 전통과 현대의 조화, 새로운 재료에 대한 포용력 등으로 공예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극복함과 동시에 지금의 공예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공모전의 수상 작품들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는 명품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파워와 공예의 전통을 계승하고 새로운 시도를 통한 재료의 탐구를 장려함으로써 이루어진 결과이며 그 영향력은 현재 전세계의 공예 공모전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전시와 작품을 통한 새로운 장르의 발견은 여러 시대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공모전을 통하여 하나의 새로운 장르가 만들어진 예는 그리 흔치 않다. 그러므로 로에베 공모전의 새로운 융복합 시도와 미학적 담론의 시도는 앞으로 공예 분야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한국의 공예 공모전에도 적극 벤치마킹하여 한국의 공예 공모전만의 공예 철학을 탄생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공모전의 순기능인 작가의 발굴, 프로모션, 새로운 작품과 재료의 발견 등은 작가들이 마음껏 창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가능하다. 로에베 공예 공모전은 이와 같은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로에베 공모전은 새로운 방식의 플랫폼이 아닌 기존의 공모전 플랫폼의 형식에 전통과 현대의 융합, 재료의 확장성을 가미함과 동시에 공모전을 운영하는 그룹의 의지가 적절히 융화됨으로써 공예를 작품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기회와 공간의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공예 분야에서의 융합은 단순히 재료와 재료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 아닌 '경계'의 융합이 이루어내는 예술적 승화임을 이번 로에베 공모전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되었다.

REFERENCES

- [1] H. Risatti. (2013). *A Theory of Craft: Function and Aesthetic Expression*. Mijinsa..
- [2] J. S. Kim. (2019). A Study on the Convergence and Complexity of Modern Craft in Korea-Focused on the Exhibition of Cheongju Craft Biennale. Paper of masters degree. Dankook University, Yong-In.
- [3] B. Choi. (2017). *Tindk of Craft*. Paju-Si, AhnGraphics

Publication.

- [4] J. Mairs. (2019). *Jennifer Lee takes over Kettle's Yard in Cambridge*. Retrieved from <https://www.wallpaper.com/design/jennifer-lee-kettles-yard-exhibition>
- [5] S. S. Park. (2001).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Mixed Materials to Contemporary Crafts. Paper of masters degree., Sookmyung University, Seoul.
- [6] Sheila Loewe. (2020.10.02). *Loewe Foundation*, <https://craftprize.loewe.com/en/craftprize2020#calls-citions-how-to2020>
- [7] J. M. Seo. (2020). *Six people on the world's top 30 list... a popular Korean craft*. Retrieved from <https://news.join.com/article/23725606>
- [8] S. Y. Jung. (2018). [*N Pick*]Loewe. Retrieved from <https://www.noblesse.com/home/npick/detail.php?no=105>
- [9]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2012). *Craft Status Report*.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 [10] S. S. Chang. (2019) A Strategic Study for 'Craft Democratization'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rough the Meaning Change of Craft.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 [11]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2). *A Basic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Mid- to Long-term Promotion Policy for Craft Culture*.
- [12] J. W. Park, W. Xie, H. S. Ro, W. S. Kim. (2018). The Possibilities in Craft Creation through Converge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 54-54.
- [13] Blake Gopnik. (2017.06.05). *Celia Pym Lets Her Craft Get Ugly and Crude-and Meaningful*. Retrieved from <https://news.artnet.com/opinion/celia-pym-loewe-chamber-980615>.
- [14] J. W. Kwak. (2017). *Value of Craft. Loewe Craft Prize*. Retrieved from <http://www.designdb.com/?menuno=1283&bbsno=3285&siteno=15&ztag=r00ABXQAOTxjYWxsIHR5cGU9ImJvYXJkIiBubz0iOTkxIiBza2luPSJwaG90b19iYnNmMjAxO SI%2BPC9jYWxsPg%3D%3D&act=view>
- [15] S. M. Kim. (2018).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nvergence through the Current Status of the Craft Industry. *The Korean Society of Science & Art*, 37(59-68), 65-65.

김 준 용(Joon-Yong Kim)

【장학선】



- 1995년 2월 : 국민대학교 공예미술학과(학사)
- 2000년 8월 : 로체스터 공과대학 유리(석사)
- 2018년 9월 ~ 현재 : 청주대학교 예술대학 공예디자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유리공예, 미술, 교육

· E-Mail : gaffer1@naver.com

서 성 욱(Seong-Uk Suh)

[정회원]



- 2019년 2월 : 청주대학교 공예디자인학과(학사)
- 2019년 3월 :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자인조형학과 (아트&크래프트 석사과정)
- 관심분야 : 유리공예, 미술
- E-Mail : shalomscott@naver.com

박 중 원(Jung-won Park)

[정회원]



- 2000년 2월 :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공예미술학과 도예전공 (학사)
- 2003년 2월 :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예학과 (석사)
- 2009년 6월 : University of Wales Institute, Cardiff, MA Ceramics 졸업
- 2015년 6월 : University of Sunderland, Ph.D. Glass and Ceramics 졸업
- 2019년 3월 ~ 현재 :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도자공예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도자, 공예
- E-Mail : pjw9357@kookmin.ac.kr